

투자협정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BIT에 대한 비교 분석

박 건 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한국에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그에 비해 양자 간 투자협정의 경우 한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중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한국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BIT의 체결은 자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자 간 투자협정의 체결 자체보다 실질적인 FDI의 촉진을 위한 활용 수단으로써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양국의 투자협정 체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해외직접투자, 양자 간 투자협정, 국제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중력모형

* 본 논문은 제15회 무역협회 논문공모전에 수상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논문의 완성에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더좋은규제연구소 초빙연구원 (a9hero@hanmail.net)

1. 서론

국가 간 투자와 무역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산물(legacy)로 오늘날 세계 경제가 번영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Hufbauer(2012)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30년 동안 국제사회의 명목 GDP는 3배, 무역은 6배밖에 증가하지 못했지만,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저장(stock)은 20배나 증가했다. 또한, FDI의 확대에 따른 실질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기술이전, 고용창출 등)가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보다 20%나 높은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1964년 UN 산하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창설되어 개도국의 세계 경제 편입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자유 무역을 촉진했다(Åslund, 2013). FDI는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 투자모국(home-country)과 투자유치국(host-country)의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FDI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규모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아 왔다. UNCTAD의 한편, UNCTAD는 2014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서 2013년 개별 국가에 유치된 해외직접투자의 총 규모가 약 145억 불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의 FDI 유치는 7,780억 불(54%), 선진국의 FDI 유치는 5,560억 불(39%) 이다. FDI의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친FDI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제도 및 법률을 변화시켜왔다(UNCTAD, 1998; UNCTAD, 2008). 즉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인 성장의 수단으로써 정부는 FDI 유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친FDI적인 정책의 일례를 보여주는 현상으로써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은 기업과 같은 투자자의 FDI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FDI를 유인하는 투자환경의 요인으로 선진국의

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UNCTAD, 2009). 국제투자협정 중 BIT는 규모가 가장 크며, 국제투자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BIT는 해외 투자자의 FDI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메커니즘(mechanism)으로, 당사국 간의 협정 체결은 기업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분쟁의 가능성이나 투자에 대한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준다(Elkins et al., 2004). UNCTAD의 투자 정책 허브(investment policy hub)¹⁾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까지 서명된 양자 간 투자협정은 2,927개에 달하며 실제 발효된 협정은 2,279건이다. 그리고 FTA와 같이 양자 간 투자협정이 아닌 협정의 경우 총 349건이며 발효된 협정은 280건이다.

하지만, 최근 BIT의 체결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FTA의 체결 내용에 투자 보호(investment protec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들이 양자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 FDI 전략에 있어 BIT뿐만 아니라 FTA와 MIA 등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협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T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의 몰수(expropriation)와 국유화(nationalization) 등으로부터 기업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이다(Åslund, 2013). BIT는 1959년 독일이 파키스탄과 도미니카공화국과 최초로 체결하였고 이후 1960년 초기에 많은 서구 유럽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BIT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BIT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FDI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BIT를 활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도국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친FDI적인 정책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결과물이 BIT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의 FDI 수행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결정요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

1) 투자정책허브, “세계투자협정네비게이터”,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검색일:2014.10.14)

다. 이는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또한 정책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정책 틀(policy framework)으로써 BIT의 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러한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있어 신뢰성(credibility)과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위한 BIT의 체결은 해외기업 투자자에게 있어, 더욱 매력적인 입지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양자 간 투자협정과 FDI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비하며,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찾기 힘들다고 분석하였다. 즉, BIT의 체결에 따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적 여지는 충분하지만, 실증적인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개별 국가 간 투자협정의 체결은 투자유치국의 친FDI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BIT의 영향 및 효과가 국가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과 그리스의 BIT와 일본과 그리스의 BIT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기체결된 BIT가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이론을 통해 BIT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FDI와 BIT의 증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BIT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 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이어서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와 후속 연구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검토

1) 양자 간 투자협정²⁾

UNCTAD가 정의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개념은 상호간 투자의 증진 및 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투자, 허가, 설립, 최혜국 대우, 보상, 자본 이전의 승인, 분쟁의 중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³⁾ 또한, Elkins et al.(2004)에 따르면, 투자협정은 상대적으로 투자의 증진을 강조하고, BIT를 통해 투자의 보호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간 투자협정은 투자보장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이 완료된 투자만 보호하는 게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설립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자 간 국제투자협정 중 BIT 외에도,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도 존재하는데, 이는 BIT와 유사하게 FDI를 촉진 및 보호하는 것으로,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BIT는 많은 국제투자협정 중 그 수가 가장 많으며, 일반적인 투자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호(1998)에 따르면, BIT의 체결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당사자국간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즉, BIT를 통해 투자모국의 기업은 자유로운 투자유치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될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이러한 FDI의 유입을 통해 대외 신

2) 일반적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은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들-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등이 위치하며, 외국인 투자의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된다. 그 다음에 투자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투자관련 송금, 수용, 손실보상, 대위변제 등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어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위치하며, 끝으로 협정의 발효, 종료, 개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법무부, 2001).

3) UNCTAD(2004), "세계투자보고서", http://www.unctadxi.org/templates/Page_1006.aspx(검색일: 2014.11.10)

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BIT는 FDI에 있어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FDI와 관련된 제반의 요소(투자환경, 투자유치제도)가 취약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BIT는 이를 보완할 기제로 볼 수 있다(서은숙, 2008).

BIT는 기본적으로 FDI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BIT는 FDI의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정책과 제도적 질(quality of institution)을 향상하며,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사인 효과(signaling effect)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최혜국 대우 등을 통해 잠재적인 투자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투자유치국으로의 FDI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국가가 BIT를 체결하는 것은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와 투자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BIT의 효과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절의 문헌검토에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2) 투자협정이 FDI에 미치는 기존 문헌검토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연구가 실제 정량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보편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논쟁 중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FDI가 상당히 복잡한 동기와 목적 등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2개의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FTA를 통한 투자협정과 관련한 연구들이고 두 번째는 국제협정으로써 양자 간 투자협정과 관련한 연구들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FTA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FTA는 일반적으로 체결 국가 간 관세철폐 및 무역의 촉진 등을 통해 FDI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FTA 체결 조항에는 투자와 관련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FTA를 활용한 투

자협정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FTA는 투자의 자유화와 투자 보호의 강화 등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투자의 규제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완화함으로써 FTA 체결 국가 간 FDI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Blomstrom and Kokko, 1997).

다음은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대부분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BIT 체결에 따른 FDI의 영향 효과를 처음으로 시도한 UNCTAD(1998)의 분석에서는 당사자국간 체결 연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BIT 체결 3년 전과 체결 후 3년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BIT는 FDI의 증가에 작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이외의 투자 환경이 향상될 때, BIT의 효과는 활성화된다고 보았다.⁴⁾ 이후 논의된 연구들은 BIT가 FDI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연구(Banga, 2003; Busse, et. al., 2008; Egger and Pfaffermayr, 2004; Neumayer, 2005; Salacuse and Sullivan, 2004)가 존재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연구(Hallward, 2003; Tobin and Ackerman, 2005; Yackee, 2009)도 존재하였다.

Blonigen and Davies(2000)의 연구에서는 투자협정이 FDI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FDI 유입에 있어 BIT 체결 효과를 분석한 Banga(2003)의 연구는 선진국과의 BIT는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지만, 개발도상국과의 BIT는 그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Egger and Pfaffermayr(2004)는 19개 OECD 국가와 투자유치국 간의 FDI에 대해서 BIT 협정에 대해 서명만 한 경우 약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실제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으면, FDI의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BIT의 서명과 발효의 기간을 분류하여 효과를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Buthe and Milner(2004)는 누적된 BIT 체결의 수가 FDI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4) UNCTAD(1998)의 연구에서는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통계적 상관관계가 약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친다고 보았으며, 양자 간 FDI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를 증진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alacuse and Sullivan(2005)의 연구는 투자유치국들이 미국과 BIT를 체결할수록 전 세계 기업들의 FDI를 약 80% 정도 촉진한다고 보았다. 반면, 미국 외의 OECD 국가들과 체결한 BIT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동부 유럽지역(CEE)에 대한 BIT의 체결 효과에 따른 FDI의 유입을 분석한 Grosse and Trevino(2005)은 BIT의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FDI를 더 많이 유치한다고 주장하였다.

Neumayer and Spess(2005)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의 BIT체결은 FDI의 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수준이 미약하면 이러한 유입은 더 증가하며, 제도가 개선될 경우 BIT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Egger and Merlo(2007)의 분석에서는 BIT가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는데, BIT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그 영향이 더 크며,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는 약 2년 이후부터 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의 연구로써, Busse(2010)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 BIT가 FDI의 유입을 증가시킨다고 보았으며 또한 이들 국가의 취약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효과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Guerin(2011)의 연구에서는 BIT의 체결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개도국에 대한 FDI 유입을 약 35%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들 또한 존재하였다. Hallward-Driemeier(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20년 기간에 걸쳐서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양자 간 FDI를 분석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하지만,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재산권 보호 제도가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일 경우 BIT의 체결 후 FDI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투자와 관련된 자국의 수준이 높을 때 BIT를 체결하게 된다

면 투자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Salacuse and Sullivan(2005)의 연구에서 처럼 미국과 체결하는 BIT가 개발도상국의 FDI를 증가시킨다고 보았지만, 반면, Tobin and Ackerman(2003)은 많은 투자유치국이 미국과 체결하는 BIT가 실제로 FDI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Yackee(2009)의 연구는 BIT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보고,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을 포함하여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기존의 BIT가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체로 일치되지 못하는 경향에 대해서, 방법론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BIT와 FDI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Aisbett, 2009).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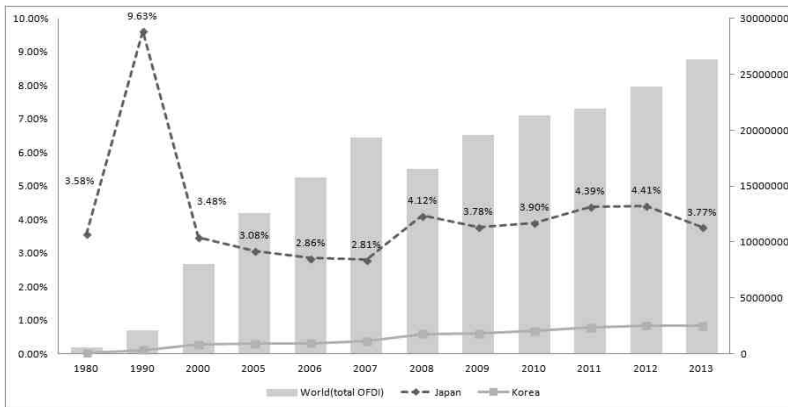
3. 한국과 일본의 FDI와 BIT

다국적기업의 FDI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규모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 새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발전이 빨랐던 일본은 80년대와 90년대 국제사회에서 FDI의 주요 행위자(actor)였던 반면 한국은 상당히 미미했다. 또한, 2013년까지를 기점으로 볼 때, 일본은 약 992,901백 만 불의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했지만, 한국은 219,050백 만 불의 투자를 수행하여 약 4.53배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5) Aisbett(2009)의 연구에서는 BIT의 FDI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FDI 결정요인을 생략하고 분석을 수행할 경우, 추론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IT의 분석에 있어, 역인과관계의 문제와 생략된 변수의 문제에 따른 잠재적인 내생성의 이슈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Dunning and Narula(1996)의 투자 발전 경로 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발전 초기의 미미했던 수준의 FDI가 점차 확대되는데, 초기에는 Inward FDI를 중심으로, 다음에는 Outward FDI로 증가하다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IFDI(inward FDI)와 OFDI(outward FDI)와 모두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단위: 백만 불, %)



〈그림 1〉 일본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1980-2013)

주: 2015년 현재의 환율을 고려한 통계, 연도별 총 FDI 규모에서 차지하는 재고량(stock)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UNCTAD Statistics에서 저자 재구성

지역별로 한국과 일본의 FDI를 비교한 결과, 일본은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순이었고 한국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순이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상당히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FDI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FDI 규모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 작은 규모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변화(2006-2012)

(단위: 100만 불)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럽	일본	18,392	21,103	22,788	17,807	14,543	39,374	31,015
	한국	1,020	3,893	1,635	5,134	6,682	4,408	5,299
아메리카	일본	12,765	26,852	73,523	28,286	14,380	25,889	46,322
	한국	2,737	4,026	4,618	6,332	6,729	8,840	7,213
아시아	일본	17,456	20,376	24,146	21,308	21,245	39,758	33,934
	한국	5,804	10,260	10,077	7,787	12,204	12,101	12,297
아프리카	일본	900	1,091	1,540	-228	-314	521	172
	한국	202	238	320	357	236	314	298
오세아니아, 극지방	일본	728	4,125	5,985	7,511	6,438	8,766	11,075
	한국	179	485	655	649	969	1,301	2,250

자료: OECD FDI 통계(<http://stats.oecd.org/#>)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아래 〈표 2〉는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현황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FTA는 전반적으로 당사국 간 관세철폐 및 자유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투자와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과 FDI에 대한 허용 분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IT와 유사한 투자협정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체결 현황을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FTA에 대해서 유사한 규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국간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정부 조달 등에 대해서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자유시장 내에서의 경제 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FTA는 2015년 기준 지역무역협정은 399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 231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또한, 1995년 이후 FTA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⁶⁾

6) FTA Korea(<http://ftahub.go.kr/main>)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양적인 규모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양자 간 투자협정을 통해 비교해 볼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체결해온 FTA와는 다르게 한국이 일본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해 왔지만, 일본의 경우 소수의 국가와 양자 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양자 간 투자협정은 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며 선진국 간의 체결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간 투자협정 현황(누적 건수)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합계(2014)
한국	14	52(39)	89(37)	89(0)	89
일본	3	8(5)	15(7)	20(5)	20

자료: UNCTAD(2014) Investment Policy Hub

주: 괄호 안은 당해 시기에 맺어진 협약을 나타냄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간 투자협정 체결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 아래 〈표 3〉이다. 한국의 경우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한 다양한 국가와 BIT를 체결해왔지만, 일본의 경우는 터키와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와는 단 한 건의 양자 간 투자협정도 체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협정 체결이 아시아 국가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체결 현황은 일본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정부 간 투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BIT체결 현황 비교

	한국		일본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이후
유럽	독일(64), 영국(76), 프랑스(77), 덴마크(88), 헝가리(88), 이태리(89), 폴란드(89), 러시아(90), 오스트리아(90), 체코(92), 리투아니아(93), 핀란드(93), 스페인(94), 그리스(95), 포르투갈(95), 스웨덴(95), 라트비아(96), 우크라이나(96), 벨라루스(97)	네덜란드(03), 알바니아(03), 슬로바키아(05), 크로아티아(05), 스위스(05), 불가리아(06), 루마니아(06), 벨기에(06)	러시아(98)	
아시아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6), 말레이시아(88), 파키스탄(88), 태국(89), 인도네시아(91), 몽골(91), 터키(91), 우즈베키스탄(92), 필리핀(94), 타지키스탄(95), 인도(96), 카자흐스탄(96), 라오스(96), 캄보디아(97), 홍콩(97), 이란(98), 이스라엘(99), 카타르(99)	브루나이(00), 일본(02), 사우디아라비아(02), 아랍에미리트연합국(02), 베트남(03), 오만(03), 쿠웨이트(04), 요르단(04), 레바논(06), 아제르바이잔(07), 중국(07), 키르기스스탄(07)	스리랑카(82), 중국(88), 터키(92), 홍콩(97), 파키스탄(98), 방글라데시(98)	몽골(01), 한국(02), 베트남(03), 캄보디아(07), 라오스(08), 우즈베키스탄(08), 쿠웨이트(12), 이라크(12), 사우디아라비아(13)
아프리카	튀니지(75), 세네갈(84), 남아공(95), 이집트(96), 나이지리아(98), 탄자니아(98), 모로코(99), 알제리(99)	부르키나파소(04), 모리타니(04), 콩고민주공화국(05), 가이아나(06), 리비아(06), 콩고(06), 모리셔스(07)	이집트(77)	
아메리카	파라과이(92), 페루(93), 아르헨티나(94), 브라질(95), 볼리비아(96), 칠레(96), 엘살바도르(98)	니카라과(00), 과테말라(00), 코스타리카(00), 온두라스(00), 멕시코(00), 파나마(01), 트리니다드토바고(02), 우루과이(09)		페루(09), 콜롬비아(11)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11)

자료: UNCTAD(2014) Investment Policy Hub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4.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면서 정부 간 투자협정의 체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종속변수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투자유치국에 투자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설명변수는 투자협정의 체결 여부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국가 간 FDI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 중 하나인 중력모형을 활용하였다. 중력모형에 따르면,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각국의 경제 규모(GDP 등)에 비례하며, 거리(distance)에는 반비례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한 국가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도 투자가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Tinbergen and Poyhonen(1963)에 제기된 중력모형은 Mccallum(1995)의 분석 이후 그 효과와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무역과 투자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이다. Lipsey(1999)는 미국의 FDI를 설명하면서 “중력모형이 FDI의 약 50% 이상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은숙, 2008: 125).” 이외에도 FDI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중력모형을 활용하고 있다.⁷⁾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FTA와 FDI를 분석하는데 중력모형을 활용한 수역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기존의 연구가 다수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FDI를 설명할 때, 중력모형은 유의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개별 국가이며 분석의 기간은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이다.⁸⁾ 이러한 형태의 자료

7) Lipsey(1999), Eaton and Tamura(1994), 신유원(2013) 등 참조.

8) 또한,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외교의 패러다임(paradigm)이 대두되었다. MB 정부까지는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및 통상교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는 통상의 기능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핵심적으로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의 경우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중력 모형의 핵심 변수인 거리(distance)와 같이 시간 불변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이러한 거리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통계 패키지는 Stata 12.0이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해당 연도에 개별 국가에 투자한 총액으로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모에 있어, 개별 국가의 기업이 투자를 수행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로그의 값을 취하면 왜곡된 분석이 될 수 있으므로, 0.1의 값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하도록 한다. 독립변수는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과 FTA 체결이며,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경우 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여 모든 독립변수는 $t-1$ 시점의 변수 즉, 종속변수 값에 대해서 전년도 시점의 변수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는 중력모형에서 요구되는 거리와 시장규모로써 GDP 등이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거리는 FDI에 있어 시장에 대한 거래의 비용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투자모국과 투자유치국 간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인력 파견,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에 높은 비용이 들고, 현지 자회사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 등이 따른다(Davidson, 1980; Hennart, 1986; Brenton et al., 1999). 또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 때 원재

정부에서는 경제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외교활용포털을 구성하고, 정상 외교 및 경제외교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경제외교는 2013년 12월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부에서 추진하였다. 즉 2013년은 한국의 경제외교 방향과 주요 행위자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 경제외교의 방향과 배치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2013년 부터, 아베 내각이 집권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신성장전략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이즈미와 간 나오토 총리의 시기와 매우 대비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분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분석의 기간을 201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료나 중간재를 본국으로부터 조달하거나 현지 자회사 생산 제품을 본국으로 반입할 경우 높은 운송비용이 수반된다(Solocha and Soskin, 1994). 또한, FDI의 경우 시장의 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한 투자 진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Dunning, 1980). 이러한 중력모형에 따른 거리 변수는 CEPII(Centred' 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에서 제공하는 거리 데이터를 양국 간 거리 데이터로 거리변수로 활용한다.

또한,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투자 기업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투자유치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상품판매를 위한 수요자로서 인구 등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FDI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변수이자 주요 입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1: 한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은 한국 기업의 FDI에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a: 양국간 BIT의 체결은 한국 기업의 FDI의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1b: 양국간 BIT의 체결이 지속될수록 한국 기업의 FDI의 증가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2: 일본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은 일본 기업의 FDI에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2a: 양국간 BIT의 체결은 일본 기업의 FDI의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2b: 양국간 BIT의 체결이 지속될수록 일본 기업의 FDI의 증가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표 4〉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내용 및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자료출처	비고
DV	FDI	한국/일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OECD Statistics	100만\$, log
IV	BIT1	한국/일본 정부와 투자 유치국간 협정의 체결 여부(체결=1)	UNCTAD IIA	dummy
	BIT2	한국/일본 정부와 투자유치국 간 투자 협정 체결의 지속	UNCTAD IIA	
CV	POP	개별 국가의 인구	World Bank Data	log
	GDP	총 GDP	World Bank Data	\$, log
	GDP_growth	개별 국가 경제 성장률	World Bank Data	%
	Distance	양국 간 거리	CEPII	log
	OECD	OECD 국가 여부	외교부	dummy

5. 실증 분석

먼저, 실증분석에 앞서 탐색적인 분석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BIT체결에 따른 FDI 규모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는 양국과 투자유치국 간 BIT 체결에 있어 FDI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비OECD 국가에서는 BIT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FDI가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ECD국가에서는 반대로 BIT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FDI가 수행되었다.

〈표 5〉 한국정부의 BIT체결에 따른 FDI 규모의 차이

	그룹 분류	관측치	평균값	표준오차	표준편차
비OECD국가	BIT 미체결	1805	6,4897	1,04939	44,58364
	BIT 체결	969	87,417	13,8797	432,0578
	전체	2774	34,759	4,949147	260,6655
OECD국가	BIT 미체결	224	214,56	49,34724	738,5619
	BIT 체결	422	73,404	11,97624	246,0235
	전체	646	122,35	18,97603	482,3049

주: 비OECD국가와 OECD국가에서 BIT체결이 0.001의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일본의 BIT에 따른 FDI를 분석하였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OECD국가군에서는 BIT를 체결한 경우가 더 많은 FDI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국가군에서는 BIT를 미체결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 일본 정부의 BIT체결에 따른 FDI 규모의 차이

	그룹 분류	관측치	평균값	표준오차	표준편차
비OECD국가	BIT 미체결	2606	90,79437	13,17718	672,6818
	BIT 체결	168	742,3969	149,8952	1942,864
	전체	2774	130,257	15,6173	822,5443
OECD국가	BIT 미체결	616	1132,476	148,1305	3676,503
	BIT 체결	30	612,3628	176,6604	967,6088
	전체	646	1108,322	141,5422	3597,511

주: 비OECD국가에서는 BIT체결이 0.00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OECD국가에서는 BIT체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t-test를 통한 결과값만으로 BIT 체결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력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에서 한국과 일본의 BIT 체결에 따른 FDI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양자 간 투자협정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체결 여부에서는 부(-)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주로 투자하는 국가들과는 상대적으로 BIT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구체적으로 BIT의 체결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BIT의 체결 이후 기간이 지속할수록 한국 기업의 FDI를 촉진한 것이다. 이는 BIT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므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느끼고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OECD 그룹과 비OECD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반면, 비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FDI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상대적으로 선진국 간 BIT의 체

〈표 7〉 한국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BIT 체결 효과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든 국가	모든 국가	비OECD	OECD
BIT 체결의 지속		0.00436***	0.00707***	-0.00727**
		(3.16)	(4.52)	(-2.42)
BIT 체결 여부	-0.0559***			
	(-3.06)			
log(거리)	-0.117***	-0.101***	-0.126***	0.101
	(-4.64)	(-3.88)	(-5.85)	(1.00)
log(GDP)	0.0356***	0.0263***	0.0246***	0.0645
	(3.87)	(2.80)	(3.18)	(1.31)
log(인구)	0.00792	0.00499	-0.00704	0.0596
	(0.88)	(0.54)	(-0.95)	(1.17)
GDP 성장률	0.000265	0.000141	0.000278	0.00769
	(0.33)	(0.18)	(0.37)	(1.28)
OECD 국가여부	-0.0000232	-0.0171		
	(-0.00)	(-0.42)		
상수항	6.063***	6.162***	6.619***	2.421*
	(20.02)	(19.74)	(25.64)	(1.91)
N	3010	3010	2420	590

주: 연도 더미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으며, 모든 모형은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음.

주: 괄호 안은 T-통계 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각각 * p < 0.1,

** p < 0.05, *** p < 0.01임

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ISDS와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BIT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써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usse(2010)의 주장과 같이 BIT는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불안정, 취약한 투자환경 등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FDI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력모형의 주요 변수인 거리도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양국의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중력모형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실제로 FDI를 수행하는 것보다 수출이나 다른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투자 규모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Eaton and Tamura, 1994; Wei, 2000), 한국기업의 FDI도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국의 시장 및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의 경우 한국의 FDI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경영이익의 창출이 높을 수 있으며, 시장의 잠재력이 큰 국가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Bergstrand and Egger, 2007; Buch et al., 2005; Wei, 20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적은 수의 BIT를 체결하여왔지만, 비OECD국가를 중심으로 BIT의 체결 후 지속할수록 FDI의 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국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OECD국가와 맺은 BIT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일본의 경우 BIT보다 전통적인 FDI의 입지요인인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BIT 효과는 약 0.436%지만, 일본의 경우 약 0.798%로써, 일본의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일본의 FDI 규모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본은 소수의 BIT를 체결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BIT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 또한 일본 BIT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9) 이론적으로 FDI는 수출이나 라이선싱 등 다양한 해외진출 방법과는 달리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전략이다.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고위험을 수반하는 FDI보다 수출이나 라이선싱을 통한 진출이 보다 선호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을수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매력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8〉 일본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BIT 체결 효과 분석(GLS)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든 국가	모든 국가	비OECD	OECD
BIT 체결의 지속		0.00798***	0.0121***	-0.0132
		(2.68)	(10.06)	(-0.71)
BIT 체결 여부	0.0127			
	(0.40)			
log(거리)	-0.0408	-0.0312	-0.0643***	0.229
	(-0.93)	(-0.95)	(-3.85)	(1.48)
log(GDP)	0.0301***	0.0286***	0.0196***	0.180**
	(3.00)	(2.74)	(4.25)	(2.44)
log(인구)	0.00602	0.00509	-0.00183	-0.0548
	(0.82)	(0.46)	(-0.35)	(-0.70)
GDP 성장률	0.000405*	0.000357	0.000269	0.00498
	(1.86)	(0.52)	(1.07)	(0.55)
OECD 국가여부	0.0427	0.0512		
	(0.71)	(1.06)		
상수항	7.506***	7.464***	8.074***	2.210
	(14.40)	(19.58)	(41.77)	(1.16)
N	3010	3010	2420	590

주: 연도 더미에 관한 결과는 생략하였으며, 모든 모형은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음.

주: 괄호 안은 T-통계 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각각 * $p < 0.1$, ** $p < 0.05$,

*** $p < 0.01$ 임

결국, BIT는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에게 있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BIT의 체결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BIT가 아닌 FTA 또는 MIA와 같은 협정의 체결을 더 활용할 수도 있으며, Sornarajah(1986)의 주장처럼 투자 보호와 같은 법적 구성보다 정치적 요인 혹은 경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력모형의 예상한

바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한국정부의 BIT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에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의 양자 간 투자협정이 이들 국가에 속한 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증가하는 FDI의 규모와 BIT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한국은 이미 BIT에 따른 ISDS로 큰 고비를 맞은 적이 있다. 즉 투기성 투자의 목적이 강한 FDI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BIT의 체결은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더욱 공고화될 필요가 있다. FDI의 촉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4년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회와 제5차 중미 인문교류고위층협상 공동개막식'에서 중국과 미국은 BIT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높은 수준과 양방향 균형적인 협의를 하루빨리 달성하며 중미 경제 관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또한, 미국 정부는 2012년 4월 자국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2012 MODEL BIT(양자간 투자협정 2012년 모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미국 정부가 체결해온 BIT의 내용의 근간을 토대로 하되, 투명성(transparency)과 일반 대중의 참여확대, 노동 및 환경보호 강화, 국영기업 관련 조항 등을 확대함으로써 BIT를 통한 자국 기업의 FDI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약 4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왔는데, 이와 같은 BIT의 전략적 변화는 자국 기업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10) 중국의 창(CRI Online). 2014년 7월 9일 (습근평, 중미 양자투자협정 협상에 박차가해야)"<http://korean.cri.cn/1660/2014/07/09/1s215358.htm>"

11) 무역협회(20120423) '미 행정부 양자간 투자협정 2012년 모델 발표'

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 또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BIT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측면을 제외하고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foreign-owned enterprises)을 예외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Åslund, 2013).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positioning)은 일본의 그것과 차이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후발주자이면서, BIT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OECD 국가와는 BIT를 체결하지 않으며, 일부 소수의 국가와만 BIT를 체결했다. 또한, 일본의 BIT에는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배영자, 2015).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할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BIT를 체결한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도 지난 투자 분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BIT의 체결뿐만 아니라 ISD를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BIT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BIT의 조항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별 BIT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의 활용은 한국과 일본의 BIT 영향 효과를 분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선진국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BIT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투자모국으로서 한국과 일본 이외에 개도국이 체결하는 BIT는 분명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몇 개의 샘플 국가를 추가로 분석하여 BIT 체결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에 적합한 BIT가 FDI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을 부분적인 수준에서 고려하여, FDI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수가 생략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의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로 볼 수 있다. BIT를 통해 FDI가

촉진될 수도 있지만, FDI의 유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BIT를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때, BIT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호·이성봉(2001), 투자협정 바로알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관호(199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한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채형(1999), “양자간 투자협정의 발전과 국제관습법의 형성 가능성”,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3호, 29-54쪽.
- 박영달·양영수(201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3호, 429-449쪽.
- 박종구(2007), 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국 법제도 연구, 한국 사이언텍 법제연구원
- 박추환·이준희(2007), “우리나라의 BRICs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관계분석-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15-232쪽.
- 배영자(2015),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 양상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83-109쪽.
- 서은숙(2008), “투자협정의 투자증진 효과분석 :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1-148쪽.
- 수역현·이준희·권영철(2014),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8권 제2호, 147-163쪽.
- 정진섭·이민재(2012), “FTA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 한국국제

- 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6권 제3호, 203-234쪽.
- 한혜정 · 이성봉(2004),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증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6(22).
- Åslund, Anders(2013), "The World Needs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Developing economies*, 2, pp. 1-8.
- Aisbett, E.(2009),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rrelation Versus Causation," in the Effects of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aties, Double Taxation, and Investment Flows 395(Karl P. Saucant and Lisa E. Sachs, eds. 2009)
- Bergstrand, J. H. and Egger, P. A.(2007), "Knowledge-and-Physical-Capital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Flow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3(2), pp. 278-308.
- Bergstrand, J. H.(1985), "The Gravity Equation in International Trade: Some Microeconomic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3), pp. 474-481.
- Blomstrom, M. and Kokko, A.(1997),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onceptual Framework and Tree Cas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750.
- Blonigen, B. A. and R. B. Davies. (2000), "The Effects of Bilateral Tax Treaties on US FDI Activity." NBER Working Paper no. 7929.
- Busse, M. and Koniger, J. and Nunnenkamp, P.(2010), FDI promotion through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ore than a bit?. Kiel Institute for Economics.
- Donnenfeld, S.(2003), "Regional Bloc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5), pp. 770-788.
- Dunning, J. H.(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 pp. 9-30.

Eaton, J. and Tamura, A.(1994),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8(4), pp. 478-510.

Egger, P. and Pfaffermayr, M.(2004),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4), pp. 788-804.

Egger, P.and Merlo,V.(2007),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DI Dynamics. *World Economy*, 30(10), pp. 1536-1549.

Elkins, Z. and Guzman A.T. and Simmons B.A(2006), "Competing for Capital : The diffus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60-2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 pp. 811-836

Evenett, S. J. and Keller, W.(2002), "On Theories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Gravity Eq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 281-316.

Hallward-Driemeier, M.(2003),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ly a bit and they could bit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21. Washington, DC..

Neumayer, E. and Spess,L.(2005),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3(10) pp. 1567-1585

Salacuse, J. W. and Sullivan, N.P.(2005). "Do BITs really work? An Evaluat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ir Grand Bargain",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6(1), pp. 67-130.

Solocha, A. and Soskin, M. D.(1994), "Canadian Direct Investment, Mode of Entry and Border Loca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4(1), pp. 79-95.

- Tobin, J. and Rose-Ackerman, S.(200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Public Policy.
- Tobin, J. and Rose-Ackerman, S.(2006), When BIT Shave Some Bite: The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f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Yale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Public Policy.
- UNCTAD(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United Nations.
- _____ (2000),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59-1999. United Nations.
- _____ (2005),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Monitor 2 ,pp. 1-16
- _____ (2009), The Ro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2009
- Wei, S.(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pp. 1-11.
- Yackee, J. W.(2009), “Pacta Sunt Servanda and State Promises to Foreign Investors in the Era Befor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yth and Reality”,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32(5), pp. 1550-1613.
- Yackee, J. W.(2010),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Some Hints from Alternative Evidence”, March 22, 2010. University of Wisconsin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1114.
- 투자정책허브, 세계투자협정네비게이터”,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검색일:2014.10.14\)](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검색일:2014.10.14)
- UNCTAD(2004), “세계투자보고서”, [http://www.unctadxi.org/templates/P age____1006.aspx\(검색일: 2014.11.10\)](http://www.unctadxi.org/templates/P age____1006.aspx(검색일: 2014.11.10)

〈부록〉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84개, 미발효 5개, 종료 10개)

구분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1	구주 지역 (34)	독일	1964.2.4.	1967.1.15.	
2		스위스	1971.4.7.	1971.4.7.	2006.9.1. 종료
3		영국	1976.3.4.	1976.3.4.	
4		프랑스	1977.12.28.	1979.2.1.	
5		덴마크	1988.6.2.	1988.6.2.	
6		헝가리	1988.12.28.	1989.1.1.	
7		이탈리아	1989.1.10.	1992.6.26.	
8		폴란드	1989.11.1.	1990.2.2.	
9		러시아	1990.12.14.	1991.7.10.	
10		오스트리아	1991.3.14.	1991.11.1.	
11		터키	1991.5.14.	1994.6.4.	2018.8.1. 종료
12		체코	1992.4.27.	1995.3.16.	
13		우즈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14		리투아니아	1993.9.24.	1993.11.9.	
15		핀란드	1993.10.21.	1996.5.11.	
16		스페인	1994.1.17.	1994.7.19.	
17		그리스	1995.1.25.	1995.11.4.	
18		포르투갈	1995.5.3.	1996.8.11.	
19		타지키스탄	1995.7.14.	1995.8.13.	
20		스웨덴	1995.8.30.	1997.6.18.	
21		카자흐스탄	1996.3.20.	1996.12.26.	
22		라트비아	1996.10.23.	1997.1.26.	
23		우크라이나	1996.12.16.	1997.11.3.	
24		벨라루스	1997.4.22.	1997.8.9.	
25		네덜란드	2003.7.12.	2005.3.1.	
26		알바니아	2003.12.15.	2006.5.18.	
27		슬로바키아	2005.5.27.	2006.2.7.	
28		크로아티아	2005.7.19.	2006.5.31.	
29		불가리아	2006.6.12.	2006.11.16.	
30		루마니아	2006.9.6.	2008.1.11.	
31		아제르바이잔	2007.4.23.	2008.1.25.	
32		키르기스스탄	2007.11.19.	2008.7.8.	
33		벨기에 · 룩셈부르크	2006.12.12.	2011.3.27.	
34		아르메니아	2018.10.19.	2019.10.3.	

35	아시아 지역 (18)	스리랑카	1980.3.28.	1980.7.15.	
36		방글라데시	1986.6.18.	1988.10.6.	
37		말레이시아	1988.4.11.	1989.3.31.	
38		파키스탄	1988.5.25.	1990.4.15.	
39		태국	1989.3.24.	1989.9.30.	
40		인도네시아	1991.2.16.	1994.3.10.	
41		몽골	1991.3.28.	1991.4.30.	
42		필리핀	1994.4.7.	1996.9.25.	
43		인도	1996.2.26.	1996.5.7.	2017.5.12. 종료
44		라오스	1996.5.15.	1996.6.14.	
45		캄보디아	1997.2.10.	1997.3.12.	
46		홍콩	1997.6.30.	1997.7.30.	
47		브루나이	2000.11.14.	2003.10.30.	
48		일본	2002.3.22.	2003.1.1.	
49		베트남	2003.9.15.	2004.6.5.	
50		중국	2007.9.8.	2007.12.1.	
51		한·중·일	2012.5.13.	2014.5.17.	
52		미얀마	2014.6.5.	2018.10.31.	
53	아프리카- 중동지역 (28개)	튀니지	1975.5.23.	1975.11.28.	
54		세네갈	1984.7.12.	1985.9.2.	
55		남아공	1995.7.7.	1997.6.6.	
56		이집트	1996.3.18.	1997.5.25.	
57		나이지리아	1998.3.27.	1999.2.1.	
58		이란	1998.10.31.	2006.3.31.	
59		탄자니아	1998.12.18.	-	
60		모로코	1999.1.27.	2001.5.8.	
61		이스라엘	1999.2.7.	2003.6.19.	
62		카타르	1999.4.16.	1999.5.16.	
63		알제리	1999.10.12.	2001.9.30.	
64		사우디아라비아	2002.4.4.	2003.2.19.	
65		아랍에미리트	2002.6.9.	2004.6.15.	
66		오만	2003.10.8.	2004.2.10.	
67		쿠웨이트	2004.7.15.	2007.8.31.	
68		요르단	2004.7.24.	2004.12.25.	
69		부르키나파소	2004.10.26.	2010.4.14.	
70		모리타니아	2004.12.15.	2006.7.21.	
71		콩고민주공화국	2005.3.17.	-	
72		레바논	2006.5.5.	2006.12.21.	
73		리비아	2006.9.21.	2007.3.28.	
74		콩고공화국	2006.11.8.	2011.8.13.	

75		모리셔스	2007.6.18.	2008.3.7.	
76		가봉	2007.8.10.	2009.8.9.	
77		르완다	2009.5.29.	2013.2.16.	
78		짐바브웨	2010.5.24.	-	
79		카메룬	2013.12.24.	2018.4.13.	
80		케냐	2014.7.8.	2017.5.3.	
81	미주 지역 (19개)	파라과이	1992.12.22.	1993.8.6.	
82		페루	1993.6.3.	1994.4.20.	2011.8.1. 종료
83		아르헨티나	1994.5.17.	1996.9.24.	
84		브라질	1995.9.1.	-	
85		볼리비아	1996.4.1.	1997.6.4.	2019.6.4. 종료
86		칠레	1996.9.6.	1999.9.16.	2004.4.1. 종료
87		엘살바도르	1998.7.6.	2002.5.25.	2020.1.1. 종료
88		니카라과	2000.5.15.	2001.6.22.	2019.10.1. 종료
89		과테말라	2000.8.1.	2002.8.17.	
90		코스타리카	2000.8.11.	2002.8.25.	2019.11.1. 종료
91		온두라스	2000.10.24.	2001.7.19.	2019.10.1. 종료
92		멕시코	2000.11.14.	2002.6.27.	
93		파나마	2001.7.10.	2002.2.8.	
94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2.11.5.	2003.11.27.	
95		자메이카	2003.6.10.	2007.11.5.	
96		도미니카	2006.6.30.	2008.6.10.	
97		가이아나	2006.7.31.	2006.8.20.	
98		우루과이	2009.10.1.	2011.12.8.	
99		콜롬비아	2010.7.6.	-	

자료: 외교부(2020).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2020.11)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in South Korea and
Japan

Park, Geon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status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ompanies in individual countries in carrying 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red to Korea, Japan has a considerable amount of overseas investment. However, the size of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is only 30 percent of Korea's. Gravity model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nclusion of BIT between Korea and the investment attraction countries is significant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the increase in investment. The case of Japan is also same as South Korea. In addition to these results, the ratification of the BIT itself is important, but it should be actively used as a means to promote practical FDI. Therefore, qualitative enhancement is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conclusion of BIT on investment.

Key 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FTA), gravity model

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7일